

로마가 비전을 수립한다 - 번호 7

최후의 논쟁: 재림교 예언 속 로마의 상징과 은혜의 시기 마감

Jeff Pippenger

2024-08-17

우리는 재림운동의 역사 가운데 로마의 상징을 둘러싼 논쟁이 쟁점이 되었던 여섯 개의 역사적 선을 살피고 있다. 우리는 '여기 조금'과 '저기 조금'에서 나오는 '선 위에 선'이라는 늦은비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로마의 상징을 둘러싼 최초의 논쟁이 현재의 논쟁을 보여 준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벌어질 마지막 논쟁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로마의 상징을 둘러싼 이 최종 논쟁의 심각성은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구절들은 다니엘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를 예표한다. 40절의 역사는 예언 연구자를 1989년, 곧 10절에 표상된 소련의 붕괴로 이끈다. 그 다음 절인 41절은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가리키는데, 이는 16절에 의해 예표된다. 영감은 봉인된 것이 '마지막 날들과 관련된 다니엘서의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까지는 말세의 봉인된 부분이며, 그것은 10절부터 16절에 예표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의 증가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은혜의 시기의 종료로 이끈다. 미국에서의 재림교회의 은혜의 시기는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10절부터 16절 가운데 14절은, 그 환상을 확립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강탈자들"임을 밝힌다.

그러므로 1843년 개척자 도표에 제시된 밀러파 논쟁은 재림주의 역사에서 로마와 관련된 첫 번째 논쟁이다. 바로 그 동일한 논쟁이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은, 보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께서 항상 처음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알려 준다. 현재의 논쟁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르치는 최종 논쟁이다.

성별된 예언적 논리는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 그들의 은혜의 시한이 닫히기 전에 십사만 사천이 완전한 연합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친다. 말라기의 언약의 사자의 정련하는 불이 이제 레위인들을 금과 은처럼 정결하게 하고 있다. 먼지 털이슬을 든 사람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고 있다.

"그의 손에 키가 있으니,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의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리라." 마태복음 3:12. 이는 정결케 하시는 때 중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겨가 알곡과 분리되고 있었다. 책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허영되고 자기의로우며, 겸손한 삶을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에게서 떠났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오늘날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제자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영혼들이 시험을 받는다. 진리가 마음에 깊이 와 닿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을 본다. 그들은 자신 안에 전적인 변화의 필요를 본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분노한다.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중얼거리며 예수를 떠났던 것처럼, 그들도

실족하여 떠나간다.” 시대의 소망, 392.

처음 16절이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의 시작이며, 그 절들이 그 장의 마지막 6절과 상응한다는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의 절들을 사용하여 다니엘이 12장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의 최종 분리를 지금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논쟁의 심각한 성격을 증언하는 세 번째 증인은, 영감이 화잇 자매의 저술을 통해 1843년 개척자 도표를 분명히 지지하고 있으며, 그 도표가 14절에서 로마에 관한 분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의 논쟁은 마지막의 논쟁을 대표하며, 14절의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에 대한 밀러주의자들의 이해를 영감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은, 그 기초적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곧 동시에 '예언의 신'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 논쟁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앞선 두 증인과 일치하여, '예언의 신'을 고수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곧 최종적 기만은 '예언의 신'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사탄은 . . . 거짓된 것을 끊임없이 밀어 넣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한다. 사탄의 가장 마지막 속임수는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잠언 29:18). 사탄은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과 여러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참된 증언에 두고 있는 신뢰를 흔들려 놓으려 일할 것이다.

증언에 대한 사탄적인 증오가 불붙게 될 것이다. 사탄의 활동은 교회들이 그것들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 놓는 데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영의 경고와 책망과 권면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탄은 자기의 속임수를 들여오고 영혼들을 그의 미혹으로 결박하기 위한 그렇게 분명한 통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선택된 기별, 제1권, 48쪽.

엘렌 화잇의 저술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영의 증언'의 권위를 무효화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맨 마지막 기만'이다. 화이트 자매는 자신이 '보여 주심을 받았다'며, '1843년 도표는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앞선 문장은 예언의 영의 권위에 대한 거부를 말세의 이상과 직접 연결시키는데,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말세에 관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14절에서 '강도들'이 그 이상을 확립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잠언 29장 18절의 솔로몬의 이상을 가리키며, 거기서는 이상이 없는 자들은 '망한다'고 말하고, '망한다'(perish)는 단어는 '벌거벗게 된다'는 뜻이다.

"멸망한다"는 따라서 마지막 때에 "예언의 영"을 지지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 안에 나타난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이 벌거벗고 멸망하게 됨을 가리키며, 이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인들에 대한 묘사이다. 그들은 "네가 옷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할 흰 옷"을 사라는 권고를 받는다. 만일 그 권고를 거부하면 그들은 주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심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벌거벗음이 은혜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드러난다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한다.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준수령 때, 그 벌거벗은 영혼들은 다니엘 11장 41절에 묘사된 대로 넘어지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게 될 이유는 예언의 신의 권위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예언의 신은 재림신앙의 기초를 나타내는 1843년 개척자 도표를 지지하며, 그 도표에는 14절에서 "네 백성을 노략하는 자들"로 묘사된

권세가 로마임을 식별함으로써 그 이상을 입증하는 “열쇠”가 포함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탄의 기치 아래에 서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에 담긴 경고와 책망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이다.

더 큰 헌신과 더 거룩한 봉사를 향한 부르심이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 사탄의 제안을 대변하고 있는 이들 중 일부는 제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신뢰가 요구되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나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받아 주시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어둠의 권세자의 검은 깃발 아래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위한 귀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별한 의미에서 남녀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 진리는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발전할 것이다. 진리의 신성한 기원자께서는 그를 알기 위해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과 점점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누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나아가심이 새벽처럼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몸이 육체적 힘을 얻듯이 영적인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스폴딩과 매건, 305, 306.

지난 글에서 우리는 유라이어 스미스가 1863년 반란의 주도자였음을 확인했는데, 왜냐하면 가짜 1863년 도표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가 1863년에 만든 도표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예언적 기별에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제거했으며, 이로써 기초를 점진적으로 허무는 일의 시작이 되었고, 또한 모래 위에 세워진 거짓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토대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이후 재림 역사에서 그의 ‘북방 왕’에 대한 사사로운 해석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의 예언 모형의 열매를 드러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음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버렸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마태복음 7:15-27.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지도부는 1989년에 제쳐졌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 때 유대 교회의 지도부가 제쳐졌던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더 깊고 더 애정 어린 관심으로 빛의 세계에서 온 거룩한 존재들이 지상으로 이끌린다. 그분의 임재로 온 세상이 더 밝아진다.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린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에 충실했다면,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제쳐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 주고, 마른 땅에 홍수를 내리리라."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떠오른다." 이사야 44:3; 시편 112:4. 빛을 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밝은 빛줄기가 비칠 것이다. 시대의 소망, 47.

그리스도의 연대표에서 끝의 때는 그의 탄생이었고, 바로 그때 그 세대를 시험할 기별의 봉함이 풀렸다. 1989년은 14만 4천 가운데 들라고 부르심을 받은 후보자들에게 있어 끝의 때였다. 유라이아 스미스의 예언 모형은 1843년 도표에 제시된 기초 진리들을 거부했다. 그 진리들이 바로 '반석'이었다.

"경고가 왔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그 기별이 온 이래 우리가 세워 온 믿음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며 세상 앞에서 왔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빛을 구하던 가운데 우리의 발이 디뎠던 그 토대에서 발을 떼려는 의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만세 반석과 같아야 한다. 그것이 주어진 이래 줄곧 나를 인도해 왔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3년 4월 14일.

2001년 9월 11일, 셋째 화의 이슬람을 상징하는 바람들이 풀려나면서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애국자법은 영국법에서 로마법으로의 전환을 표시하며 교황권의 홍수가 흐르기 시작했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했다. 라오디게아적 상태의 재림교회라는 집에 대한 최종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내리치니, 그 집이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

그때 힘센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는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과, 1863년의 반역 이후 점차적으로 채택되어 온 교황 로마와 배도한 개신교의 가짜 방법론이 바벨론의 포도주(교리)로 상징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일 후에 나는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 있게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모든 부정하고 미운 새들의 우리가 되었도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의 사치의 풍요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1-3.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의 때에,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대한 시험 과정은 끝났고, 14만 4천에 속할 후보자들의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2023년 7월에 미가엘이 그 후보자들을 깨우기 시작했을 때, 재림주의의 비유에서 기름으로 표현된 그 기별이 다시 봉인이 풀렸다. 2001년 9월 11일 이후이든 2023년 7월 이후이든, 기름이 부어지는 일이 있었고, 2023년 7월에 봉인이 풀린 그 기별은 완전히 전개되었을 때 그 비유의 한밤중 외침 기별이다.

그것은 시험의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위한 기별로 시작하지만, 점차 커져 큰 외침의 기별이 된다. 그 기별은 곧 임할 일요법령의 때에 이르게 되며, 그것이 이르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음성이 하나님의 다른 양 무리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른다.

또 내가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너희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또 그녀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8:4, 5.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음성은 시험의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했고, 그때 늦은 비가 뿌려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음성은 그 시험의 때의 끝을 밝히고,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위한 시험의 때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경고하기 위한 마지막 사업에서 교회들에게 두 가지 뚜렷한 부르심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러하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오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2월 6일.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강한 미혹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 성취된다.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시험이었든,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을 경험한 처녀들의 시험이었든, 그 시험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 일어난다. 그 부어주심은 시험의 메시지를 의미한다.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은 한때 사탄에게 덮는 그룹으로 주어졌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분의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을 통해 주께서는 땅의 주민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신다. 황금 기름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등불에 공급하셔서 그것들이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상징한다. 만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를 통해 이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금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가라' 하는 부르심이 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자기들의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는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생애는 파멸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널리 부어질 것이다. 금으로 된 관들을 통해 그 금기름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의로운 해의 밝은 광선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빛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20일.

14만 4천의 인침의 때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으며, 두 가지 시험 기간을 가리킨다. 첫째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대한 최종 시험이고, 둘째는 열 처녀의 비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든 미련한 처녀가 되든, 모든 처녀들은 지체의 때를 경험해야 한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지체 기간은 두 번째 천사가 임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첫 번째 실망 때 일어났다. 그때 하나님의 이전 언약의 택하신 백성이었던 개신교도들은 지나쳐졌다. 2020년 7월 18일, 이전 언약의 택하신 백성은 지나쳐졌고,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지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시험의 과정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 후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이 엑서터 캠프 집회에 완전히 임했을 때, 누가 그 메시지(기름)를 가지고 있었고 누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가 드러났다. 어느 역사에서든 이전 언약의 택하신 백성은 가장 먼저 시험을 받고 지나쳐진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리라.’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으며, 큰 빛과 기회를 받았으나 이를 활용하지 않은 자들이 가장 먼저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떠나가게 했다. 오늘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나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을 소스라치게 해야 한다. 끝이 가깝다. 우리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각 교인의 마음에서 경험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죄 사함만이 예수의 죽으심의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그분은 죄가 제거되도록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인간 본성이 그 폐허에서 회복되고, 다시 아름다워지고, 재건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합당하게 되도록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선정된 메시지, 3권, 154.

두 시험 기간 중 어느 때이든, 봉인되지 않은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은 바울의 강한 미혹을 받는다.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들을 형벌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노아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세상에 한 메시지가 보내졌고, 사람들의 구원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들이 그 경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최악된 인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고, 그들은 홍수의 물 속에서 멸망하였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의 죄 많은 거민들을 위해 자비가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제외한 모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삼켜졌다. 그리스도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세대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하게 버려졌느니라.' 마지막 때를 내다보며, 같은 무한하신 권능께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관하여 선언하신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실 것이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절함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거두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기만에 그들을 내버려두신다." 초기 문집, 46.

이 연구는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